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about the renovation project of the Modern Age Architecture

서성호* / Seo, Sung-Ho

박찬일** / Park, Chan-Il

Abstract

For last century, our country fast changed by development of industry but we justly looked away that cultural and natural environment that must preserve inside the change, and we sought quantitative growth. But consciousness about culture is rising now; thereby social request becomes strong that is improved cultural environment; and viewpoint is appearing which is thought heftily cultural environment of city. Important thing of them is the modern age architecture, but serious discord is happening in the current society that allows conservation and destruction of the modern age architecture. But, visible cultural asset such as the modern age architecture is value when it protected as the first time, When it was broken!, restoration or preservation is very hard. Therefore, we finish boring controversy now and deliberate about renovation project of the modern age architecture really necessary to us.

키워드 :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신건축誌, 재생, 보존, 보전

Keywords : the modern age architecture, renovation, new architecture magazine, restructure, preservation, conserv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의 도시공간에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 다양한 근대건축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에 의한 계속되는 확장으로 거대화 일변도에 편중되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의 빠른 확장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허용으로 이어지고, 보전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노후·훼손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근대건축물은 보전 의식과 경제논리에 밀려 이미 상당수는 이미 멸실되고 훼손되어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의 도시는 그들의 역사적 유산인 근대건축물을 이미 과거와 현대의 보존과 공존의 개념에 맞추어 법규적 제재와 아울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1970년대를 지점으로 많은 주목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근대건축물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최근에 들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이고, 현존해 있는 근대건축물의 급격한 훼손 및 소실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보존 가능한 건축물의 발굴과 정비 및 법률의 미비로 근대건축물의 본래의 가치상실과 신건축물과 부조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개항시기가 비슷하며 다양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역사적 산물인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리노베이션의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보존·활용 가능한 근대건축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과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의 근대건축의 실정은 주로 일제강점시대의 잔재물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구의 경우는 우리와 상이한 상황에 있다. 즉, 서구 사회에서의 근대는 시대의 맥을 따라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양의 근대개념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우리의 역할과 관여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의 근대건축물의 보존, 활용 사례를 일본의 건축전문지인 신건축「新建築」誌 1970년 1월호부터 2005년 6월호에 소개된 근대건축물의 보존, 활용 사례와 관련된 작품과 논설의 분석을 통해 근대건축물의 보존, 활용에 대한 방안을 추출하였다. 또한 추출된 데이터로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방법을 도출하고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 리노베이션 방법을 도출한다.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2. 근대건축물의 이론적 고찰

2.1. 근대건축물의 상황

(1) 근대건축물의 실태

보존 가치가 충분한 근대건축물이 다수 현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소유로 전통건축물과는 달리 생활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거나 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존 건축물로 지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장치의 보존 노력 없이 개·보수를 통해 구조, 외관 등이 훼손되고 있다.

(2) 문제점

‘근대’에 관한 학계의 명확한 시기적 구분이 논의 중이고, 명확한 개념의 정립 및 범위 설정이 없고 근대건축물의 형성 시기가 일제 강점기와 맞물려 있어서, 치국의 역사로 볼 때 소멸의 입장과 역사적 흐름으로 보존하자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의 문제는 범국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보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 근대건축물의 재생의 중요성과 가치¹⁾

(1) 시대의 역사·사회·문화의 중요한 척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시간성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의 축적이며,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기록적 가치를 가진다. 건축물에는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성, 서구문화의 도입과 용도에 따라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적 양식을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건축사적 가치나 구조 및 재료 등의 변화된 모습의 단편을 볼 수 있다.

(2) 건축물의 가치

건축물은 물리적 가치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①건축물의 연령, ②설비의 노후도, ③구조의 노후도로 평가가 될 수 있다. 건축물의 연령은 시기와 노후도의 역사성 및 희소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설비와 구조의 노후도는 지붕, 벽체 및 바닥, 개구부에 따라 상태에 따라 재생과 보전을 하게 된다.

(3) 주변과 역사적 경관의 척도

근대건축물이 재생을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주변과의 조화와 역사적 경관의 형성에 있다.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색채, 재료, 규모, 형태, 비례, 재료, 색채 등으로 도심경관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으로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 경관의 형성은 건축물의 양식 등 외관의 역사적 경관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하다.

3. 신건축誌의 사례분석

3.1.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유형분석

건축물의 보존에 있어 역사적 가치, 주변의 여건, 경제 등의 다양한 현황에 따라 건물의 보존 리노베이션 유형이 달라진다.

신건축에 소개된 사례 60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이 유형을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유형의 분류와 그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발산적 방법

발산적 방법의 의미는 리노베이션을 함에 있어 두 시대의 경제, 문화, 사회에 따른 충격들에 대해 상호 간섭함에 있다. 이는 서로 보완과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증축과 개축 등 기존의 건물에 인위적 행위를 가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1995년 동경대지진 이후 일본의 근대건축물 중 벽돌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내부구조의 보강을 행하고 건물외부 면을 해체한 후 외벽부만을 다시 수복한 사례이다. <그림 1>

한편으로는 동경의 국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처럼 구 건물에 신 건물 또는 새로운 건축적 요소들이 상충·관입해서 건물의 조화를 피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이와 같이 발산적 방법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여 건물간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여 부각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며, 현실적으로 근대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카나자와 시민예술촌



<그림 2> 국립어린이도서관

이와 같이 발산적 방법의 형태분류를 그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축형

이 유형은 전체복원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983년 히메지 시립미술관의 경우 개축의 경우와 같이 계획되어진 사례이다. 건물의 재이용 방안으로 시민을 위해 미술용도의 문화시설로 만들고,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두 건물동의 경관과 벽돌조의 외관을 보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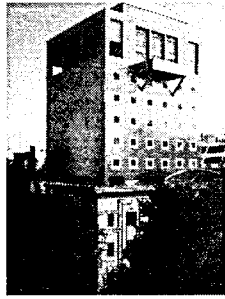
<그림 3> 히메지시립미술관

1) 인천광역시, 개항기 근대건축물 탐집지역 지구단위계획, 2003. 5. pp.33-34

내부는 반면에 새로운 구조체를 이입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그림 3>

② 증축형

구건물 화강암과 신건물의 반사성 우리의 근대건축물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최근에 들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이고, 현존해 있는 근대건축물의 급격한 훼손 및 소실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보존 가능한 건축물의 발굴과 정비 및 법률의 미비로 근대건축물의 본래의 가치상실과 신건축물과 부조화가 두타일로 신건물이 하늘에 비쳐 대비적 요소를 부각하였다. 재료적 특성을 이용한 과거의 흔적 위에 구건물의 디자인의 거의 재현된 단순화한 형태의 매스가 덧붙여져서 대립하지만 서로의 특질을 강화하여 각 요소의 의미가 가시화 되도록 하였다. <그림 4>



<그림 4> 오차노미즈 스퀘어 A관

③ 복원형

이 건물은 보존방법을 검토한 후, 동태(動態)보존되어진 사례이다. 벽돌벽 동체 보강을 위해 벽돌의 두께를 넓히는 벽량(壁量)부분의 보수가 이루어지고, 기존건물의 나무로 된 기둥의 부식으로 지반이 유출된 부분을 시멘트 보강을 하였다. 이 건물은 외관부분의 복원공사로 창고로 사용되기 이전의 세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복원 당시 시간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였다. 그 예가 세관 창고의 개구부를 원래 되로 두고, 내부의 세월의 흔적으로 더러워진 벽돌을 그대로 살린 게 특징이다. <그림 5>



<그림 5> 모지세관

상기와 같은 발산적 방법의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디자인언어 방법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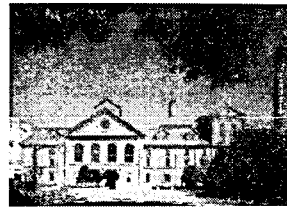
- ① 상호 관계적 이입
- ② 물성의 부각
- ③ 시간의 흔적
- ④ 내외부의 이질화
- ⑤ 재료의 이질화
- ⑥ 상층과 대립/절충
- ⑦ 은폐와 노출
- ⑧ 혁신과 보수

(2) 수용적 방법

수용적 방법은 주로 보존²⁾에 의한 방법으로, 본래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기존의 건물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극히 일부만 남겨 놓아,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축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다. 삿포르 맥주원은 외부적 요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내부시설을 박물관으로 용도변경하고 있다. <그림 6>

치바市 미술관은 신건물에 구건물 전체가 감싸는 형태로 구건물이 신건물의 일부가 되어 현대에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건물이 소실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능을 갖는 현대적 건물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7>



<그림 6> 삿포르 맥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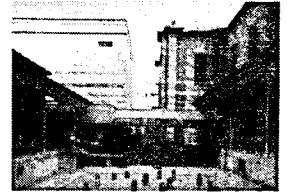


<그림 7> 치바市 미술관

이와 같이 수용적 방법의 형태분류를 그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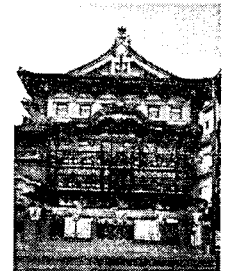
① 보존형

다른 시대에 건축된 구 우편국과 구 일본은행 건물을 포함한 근대건축사의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구상물로 박물관 그 자체가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공간전시의 일부가 되었다. <그림 8>



<그림 8> 교토문화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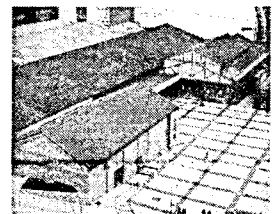
반면 신미나미좌는 내외부의 전통적 이미지를 그대로 노출시켜 보존하고 내부 시설만을 현대화하였다. 일본의 전통 가극극장이라는 특수한 사용용도에 비쳐 볼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9>



<그림 9> 신미나미좌

② 전용형

공장에서 인테리어 마트로 수복 재활용한 사례로 상당 부분의 증축과 해체를 하였고, 중앙부에 파티오를 설치하였다. 기존의 벽돌벽과 기둥·보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이를 다시 수복함으로써 재료성을 부각시켰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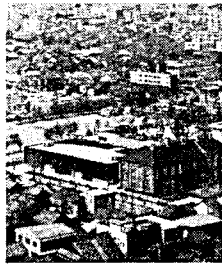
<그림 10> 로코파인물

③ 병존형

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에 환경을 서로 조정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일반적으로 보존은 원형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상의 물리적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상의 실체에 아무것도 첨가되거나 감하여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보존은 활용이나 재생 등을 포함하는 자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이 가미

기존의 역사적 건축물의 주위에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구조를 세워 조직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카나자와 시립도서관은 구건물과 신건물의 차마선을 맞춰 두공간의 일체화된 하나의 디자인적 언어로 읽히도록 하였다. 재료의 색은 보색관계로 절충화 시키고, 신관의 외부 재료적 특성을 억제함으로써 구건물의 현대적 건물에 의해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 정체성을 확립 하였다. <그림 11>



<그림 11> 카나자와 시립도서관

상기와 같은 수용적 방법의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디자인언어 방법을 도출하였다.

- ① 건물의 표본화
- ② 이미지화
- ③ 시각적인 연속성
- ④ 동시적인 지각성
- ⑤ 반전의 효과
- ⑥ 스케일의 변화
- ⑦ 건축물의 자립과 종속화
- ⑧ 흔적의 박제화

(3) 중간적 방법

이 방법은 이미 멸실되었거나 부득이하게 철거, 천재지변 등으로 더 이상의 물리적 보존이 어려울 때, 건물의 표현요소인 양식, 형태, 치수 등을 상세한 기록에 의해 보관하는 것이다. 이번의 문헌조사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3.2.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사례 분석의 결과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분석할 수 있었다.

- ① 건축물의 랜드마크
- ② 역사적 가치와 의미의 계승
- ③ 시각적 식별성
- ④ 부산함과 정숙함
- ⑤ 일체화된 언어
- ⑥ 색채의 조화

하나의 작품 속에서도 다양한 디자인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건물의 조건과 설계자의 의도 그리고 계획 등의 변수에 따라 유사한 조건을 가진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의 방향이 성립 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유사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디자인언어를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으로 활용할 해당 건물에 얼마나 유효적절한 언어적 사용을 해야 하는지는 분석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건조물이 그러하듯이 그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하는 의미와 사용

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재료의 발달과 다양성에 따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은 다양하다.

4. 결론

<표 1> 방법적 유형별 분류

방법론	세부방법	세부유형	디자인 언어
발산적 방법	복원	전체복원 [=재축]	· 은폐와 노출 · 혁신과 보수
		부분복원	
	개축	부분개축	· 물성의 부각 · 시간의 흔적
	증축	부분증축	· 상호관계적 이입 · 내외부의 이질화 · 상충과 대립/절충
수용적 방법	보존	전체보존 [=원형보존]	· 건물의 표본화 · 이미지화 · 흔적의 박제화
		부분보존	
	전용	전체전용	-
		부분전용	
	병존	신구병존	· 시각적인 연속성 · 동시적인 지각성 · 반전의 효과 · 스케일의 변화 · 건축물의 자립과 종속화
중간적 방법	기록		-

위의 <표 1> 방법적 유형별 분류에서의 디자인 언어는 일본의 신건축잡지에서 작품과 논설을 분석한 후 도출된 것이다. 근대건축물이 방법론적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세부유형에 따라 다시 분류가 되고 참고가 될 만한 디자인 언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디자인언어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 방법과 예는 신건축지의 건축물의 사례분석에 근거한다.

근대건축물은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학술적, 미적 가치 가진다. 대부분의 근대 건축물은 큰 도심에 위치하여, 근대건축물은 현대적인 기능을 수용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근대건축물 재생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보전 및 재생 활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개인에 의한 보전 의식의 변화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생하고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근대건축물도 현대의 도시공간에서 본래의 역사성과 기능성을 더하면서도 현대건축물과 같이 동등한 살아있는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김광익, 한국의 근대화와 문화변동, 공간, 1988
2. 정태용, 한국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한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3. 김희진, 건축의 보존-재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4. 4.
- 최선주, 일본의 근대건축물 보존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5. 김정신, 개화기 건축,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10주년 기념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1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문화유산지역 관리지침, 우리의 문화유산 :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02
7. 인천광역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2003
8. 김광현, 근대건축을 회피한 한국현대건축의 과제, 창작과 비평, 1994
9. 봉일범, 도시 : 사건과 구조, 시공문화사, 2002
10. 한광훈, 인천 근대건축의 보존에 관한 연구: 인천시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논문, 1996
11.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이 현대 건축에 전이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1호, 9203
12. 임현봉, 인천 근대건축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0권 2호, 9010
13. 도쿄모모 코리아 <http://docomomo-korea.org>
14. 한국건축역사학회 <http://www.kahh.or.kr>